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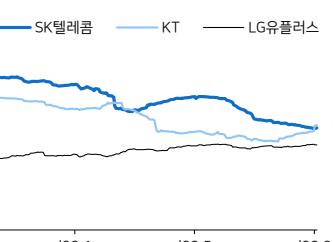
2023.9.11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3E	2024E	2023E	2024E	2023E	2024E	
KOSPI	-0.6	-1.7	-3.5	6.4	14.8	9.6	0.9	0.8	2.5	2.7	
통신업종	0.3	2.4	0.2	3.7	7.9	7.4	0.6	0.6	6.6	6.8	
SK텔레콤	1.8	4.3	-0.8	4.6	9.9	9.2	0.9	0.9	6.9	7.1	
KT	-0.9	0.2	7.1	7.7	6.7	6.1	0.5	0.5	6.2	6.4	
LG유플러스	-0.7	2.3	-7.8	-4.0	6.4	6.1	0.5	0.5	6.7	7.0	
AT&T	-2.6	1.6	-9.7	-21.9	6.0	5.8	0.9	0.9	7.8	7.8	
Verizon	-4.4	1.3	-5.7	-8.8	7.1	7.1	1.4	1.3	7.9	8.0	
T-Mobile	1.0	-0.1	4.8	-1.3	18.8	13.7	2.5	2.5	0.1	0.4	
NTT	1.6	4.7	3.6	7.4	11.3	11.0	1.6	1.5	3.0	3.1	
KDDI	1.4	5.6	-1.4	7.2	13.4	12.6	1.7	1.6	3.2	3.4	
Softbank	-2.1	-6.8	7.9	19.1	20.6	33.8	0.9	0.9	0.7	0.7	
China Mobile	-1.7	-1.8	-0.2	4.8	9.6	8.9	1.0	0.9	7.3	7.9	
China Unicom	-2.5	-5.8	-10.1	-6.0	8.1	7.2	0.4	0.4	6.7	7.9	
China Telecom	0.8	-5.5	-7.2	-10.7	10.3	9.2	0.7	0.7	6.7	7.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41.0% (-0.1%p WoW, -0.5%p MoM)

KT 41.3% (+0.7%p WoW, +1.2%p MoM)

LGU+ 39.2% (+0.1%p WoW, +0.2%p MoM)

KT, LGU+ 외국인 순매수 기록

2 업종 코멘트

▣ 전주 동향

9월 첫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9%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KT, 주주환원에 대해 "앞으로 써야 할 돈을 지금 환원하는 것"이라고 평가, 추후 배당정책 공개할 예정
세계이동통신공급자연합회, 8월 아태지역 회의서 10㎱, 12㎱, 13㎱ 등을 6G 주파수 후보대역으로 제안
국내 기관은 SKT, LGU+ 순매수, KT 순매도. 외국인은 KT, LGU+ 순매수, SKT 순매도

▣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김영섭 KT 대표이사, ICT 역량 국대화를 위한 디지코 전략을 구체화하고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은 없음을 발표
SKT, 아이온 글로벌 포럼에서 6G 백서와 차세대 모바일 프론트홀 기술 실증 결과를 발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양자기술·도심항공교통(UAM) 분야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연내 출범할 계획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 주간 뉴스

▶ 김영섭 첫 투자는 'AI'...KT, 업스테이지·판다에 200억 투자

(데일리인)

- KT, 국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판다'에 2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초거대 AI 기술 및 사업화 생태계 확장을 위해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들에 전략 투자 확대
- 업스테이지와 기업전용 대형언어모델(LLM) 솔루션 개발 등 AI분야 B2B 시장 공략
- ⇒ 판다와 교육 도메인 특화 대형언어모델 개발, 교육 플랫폼의 AI 확산 등 AI B2C 서비스 개발에 협력
- ⇒ 이를 시작으로 초거대 AI 사업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방형 AI 생태계를 조성, 투자 지속할 예정

▶ 김영섭 KT 대표 "대규모 구조조정 상황 아냐...공제창해(共濟蒼海)"

(경향신문)

- 김영섭 KT 대표이사,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대규모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
-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도 속도를 내기보다 연말에 '좋은 인사'를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언급
-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영역에서 대등한 정보기술(IT) 역량을 축적
- ⇒ 아직 초기 단계인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에너지 영역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요
- ⇒ 이를 실현하기 위한 KT의 새로운 지향점을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설정

▶ GSMA "5G 이후 '디지털전환' 다음단계 돌입...파트너십이 핵심"(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 7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주최로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개최
- 그랜드리 사무총장, 5G 이후 '디지털전환'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통신업계는 확장성·상업성이 있는 솔루션을 개발, 관련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 제공할 필요
- ⇒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해, 올해 두바이 세계전파통신회의(WRC) 회의가 중요하다고 역설
- ⇒ 모바일 부문 이용격차 줄이기 위해 저대역 주파수 공급, 5G 확장 위한 6GHz 활용 결정을 약속

▶ TTA, 양자기술·UAM 사실표준화기구 연내 출범

(전자신문)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양자기술과 UAM 분야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를 연내 출범 계획
- TTA는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전담 포럼으로,
- 미래양자융합포럼과 UAM포럼 선정, 지원, 해외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 등을 회원사로 육지
- ⇒ 유럽 주요 기업 8곳을 유치해 양자통신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신설을 위한 여건을 마련
- ⇒ UAM포럼의 출범 예정 글로벌 기구의 명칭은 'G3AM'

▶ SK텔레콤, 6G 청사진 제시...차세대 모바일 프론트홀 기술 발표

(OSEN)

- SK텔레콤, 아이온 글로벌 포럼서 6G 미래 네트워크 진화 방향을 제시
- 6G 핵심 요구사항과 진화 방향을 담은 SKT 6G 백서 공개
- 6G 유선망을 대비한 저전력/고용량의 차세대 모바일 프론트홀 기술 실증 결과를 발표
- ⇒ 이번 겸증에서 기존 5G 프론트홀 기술 대비 소모전력을 1/3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결과 얻어
- ⇒ 향후 오픈랜 기술과 연계한 차세대 모바일 프론트홀 기술도 겸증할 것을 발표

▶ "韓 콘텐츠 산업 성장 위해 망 사용료 지불해야"(전자신문)

(아이뉴스24)

- GSMA M360에서 레이튼 교수는 K콘텐츠·한류의 성공요인이 한국 초고속망에 있다고 진단
- 글로벌 콘텐츠제작사업자(CP)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트래픽의 증가는 통신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언급
- ⇒ 유일한 해결책은 인터넷망 이용 시 그에 상응하는 이용료(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강조
- ⇒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 사무총장,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 위해 글로벌 협력 필요성 주장

4 주요 지표

(집계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3E	2024E	2023E	2024E	2023E	2024E	2023E	2024E	2023E	2024E	2023E	2024E	
한국	SK텔레콤	48,750	8.0	13.2	13.5	1.3	1.4	0.8	0.9	4.2	4.2	3.7	3.7	9.2	9.4
	KT	32,350	6.2	19.8	20.3	1.3	1.4	0.9	1.0	4.2	4.3	3.3	3.2	7.1	7.4
	LG유플러스	10,370	3.4	10.8	11.0	0.8	0.9	0.5	0.6	2.8	2.8	3.1	3.0	8.4	8.3
미국	AT&T	14.4	102.9	121.9	123.2	24.4	25.5	17.5	17.9	43.2	44.1	5.9	5.7	16.4	15.1
	Verizon	33.5	140.6	133.9	135.9	30.1	30.9	19.6	19.7	47.6	48.4	6.1	6.0	20.7	18.6
	T-Mobile	137.6	161.9	78.7	81.6	15.3	18.6	8.8	11.2	29.3	31.8	8.2	7.5	13.7	19.0
일본	NTT	171	105.4	95.6	89.7	13.6	13.3	9.0	8.7	25.3	24.0	7.4	7.1	14.3	14.5
	KDDI	4,410	69.0	41.6	39.1	8.0	7.4	5.0	4.7	13.2	12.1	6.5	6.5	13.4	13.4
	Softbank	6,365	63.6	48.3	46.0	-0.1	5.4	-1.8	2.9	13.7	10.8	13.9	16.0	-2.4	3.2
중국	China Mobile	65.0	181.8	138.1	147.8	19.4	21.4	18.4	19.7	47.4	49.8	3.1	3.0	10.2	10.6
	China Unicom	5.4	21.0	52.4	55.4	2.0	2.3	2.6	3.0	14.2	14.8	1.2	1.2	5.4	5.8
	China Telecom	3.8	69.1	71.1	76.5	5.2	5.9	4.2	4.7	18.9	19.9	3.7	3.5	7.0	7.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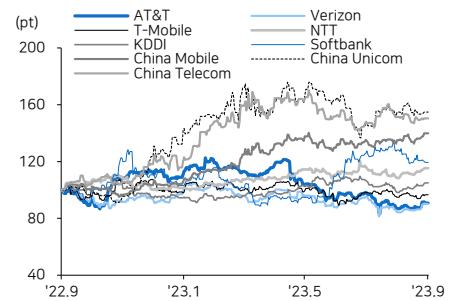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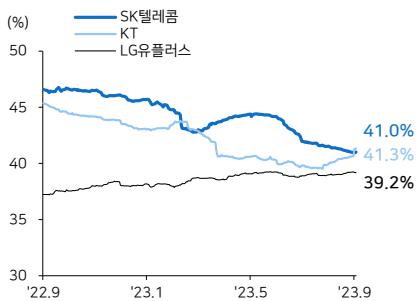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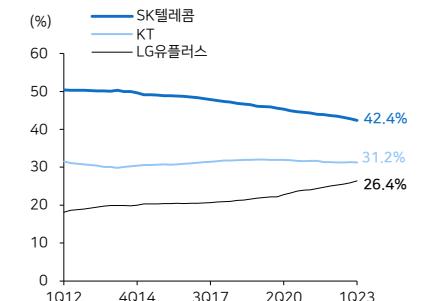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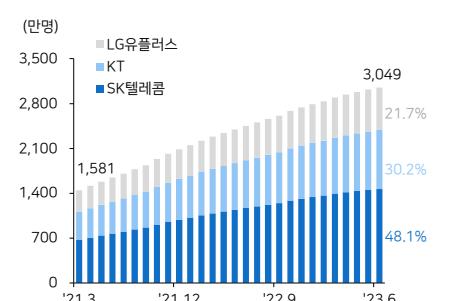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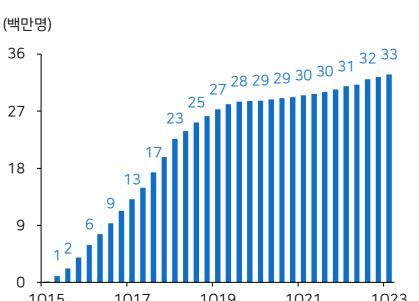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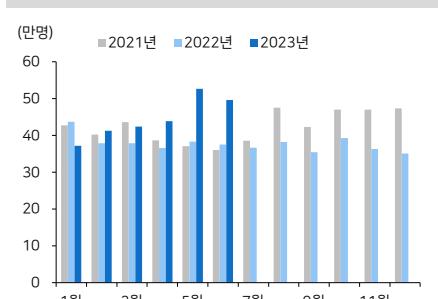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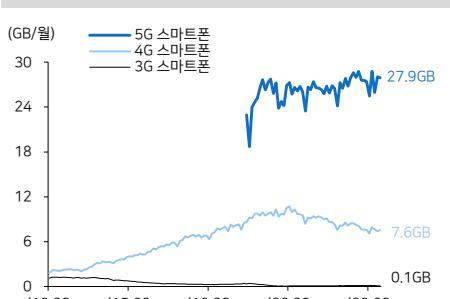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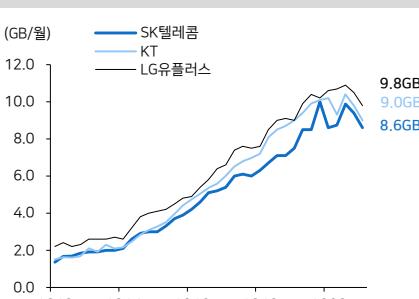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